

금융과 공동선에 관한 더블린 그룹

몰타 확인 사항들

THE DUBLIN GROUP ON FINANCE AND THE COMMON GOOD
THE MALTA FINDINGS

간추린 요약과 결론

자문회의 내용

몰타 중앙 은행

2016년 1월

“금융과 공동선에 관한 더블린 제안이 발간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황청백주년선포기념재단 (CCAP)은 다시 한 번 ‘금융과 공동선에 관한 더블린 그룹’의 은행인, 은행 감독인 금융 경제학자 및 금융윤리 전문가들을 자문회의에 초청하여, 이번에는 몰타 중앙은행 총재의 주관으로 모였다. 전체 요약과 발표된 논문들은 재단의 웹사이트인 www.centessimusannus.org에 게재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

위기의 상황은 2016년에도 유럽의 난민 유입으로 더욱 시급해지고 비극적인 채로 남아 있는데, 이는 하나의 고립된 사태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해 있는 포스트 세속사회에서 광범위한 사회문제들이 부분적으로 얽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적인 시각들이 즉각적인 니즈를 시급하게 대응 하다 보니 미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세계각처의 사람들, 그들이 가톨릭 신자이든 아니든, 이들과 감성적 유대” 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황님은 “금융 위기가 시작된 이래 지구차원의 논쟁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이슈들을 드러내는 가장 저명한 인물 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

판이 가톨릭 사회교리 (CST) 에 더 많은 청중들이 몰리고 있으며 변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는 어떠한 해결책을 낼 것인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다스림이 인간 각자에게 주어졌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원칙들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은 그 자체로서는 더 큰 정의와 포용성을 가져오는데 성공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공동선과 관련된 선택이 규제나 가격에 의해 해결될 수 없으며, 윤리에 기초한 의사 결정과정만이 공동선의 선택 문제를 해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크리스천의 관점에 필수적이지만, 복지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금전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은 “언제나 급박한 상황에서 제한될 임시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광범위한 목적은 언제나 그들이 일을 함으로써 존엄한 인생을 향유하도록 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룹은 두 종류의 질문을 요청 받았습니다. “금융개혁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내부적으로 촉발되는 윤리적 재건;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세 번째 주제는 행동지향적 아이디어; “어떻게 자발적 연대기금(VSF)을 새롭게 판촉 할 것인가?”

1, 금융개혁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떻게?

의심할 바 없이 금융개혁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은행들은 자원을 소모하는 집행과정에 있습니다. 금융부문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약간의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정책반응의 두 단계는 첫째가 중앙은행에 의해 유동성공급 수단을 통해 안정화 하는 것이고 둘째가 규제를 강화해서 통일된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통념과는 달리 은행평강 따른 금융기관 구조조정 회생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공적 자금을 이용해 궁극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주주보호가 아닙니다. 이제 금융시스템은 더 나은 자본 확충이 이루어져 더욱 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정화가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의 전부입니까? 그리고 정책 대응이 은행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까?

안정화 계획들을 통해 성공적으로 당장의 목적은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들은 많은 문제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새로운 거품자산들, 공공부채의 과도한 은행보유, 그리고 지탱할 수 없는 거대한 전체 부채의 산더미가 새로운 리스크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자본요구수준이 올라가다 보니 신용할당을 일으키고 신용등급이 낮은 차입자(주로 중소기업)에게 높은 이자스프레드가 적용됩니다. 준수해야 할 리스크 비중이 증가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금융에이전트들을 압박하여 퇴출시키게 되는 산업 집중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더 긴 안목으로 보면 위기의 숨겨진 원인들이 시스템을 더욱 취약하게 하며 아직도—하는 기능에 대해 재고하도록 요구 하고 있으며 자본이 어떻게 배부되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통적인 은행들은 다양한 금융에이전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자들의 커다란 부문이 기업세계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새로운 결재수단이 무제한적 수로 창조되고, 금융기관에 의해 잠재고객에 관한 지식 축적이 증가하면 많은 수의 새로운 규제와 윤리적 질문들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개혁과정의 다음단계는 아마도 금융 감독의 경계를 확장하고 어떤 순수한 투기적 활동에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더 많은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더 좋은 규제를 도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데 규제 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면 오만의 정도가 지나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규제프레임 워크는 잘 갖추어진 윤리적 가치 세트에 보완적인 것이 대체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규제를 총체적으로 그 목적에 비추어 재고 할 필요가 있으며, 앞서 이룬 규제가 완화된 지금 진행하는 규제재도입 사이의 균형점도 찾아야 합니다.

규제프로그램에 적용된 원칙들 가운데 G20와 유럽연합에서 채택된 것들은 야심에 찬 원칙들이며 진정으로 금융이 순전히 경제에 봉사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프로세스는 아직도 목적전체에 부합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커다란 책임성의 격차가 있습니다. ‘완전한’ 금융시장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디지털화가 부여한 새로운 문제들, 그리고 포용적 금융에 대한 통합된 접근법은 지속적이면서 영구적인 개혁노력을 뒷받침하는 금융전문가적인 정신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 내부로부터 추진되는 윤리적 재 구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가?

몇몇의 대규모 금융기관들은 공개적으로 책임 금융과 청지기정신을 천명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윤리에 관하여 최고경영층으로부터 집중적인 소통체계를 만들어 조직화하고, 직원들이 그들 동료와 경영층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듭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윤리강령을 명시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 받으며 언어와 문화가 매우 다르다 해도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집니다. 그들은 또한 실시 리스크 관리에 고도한 특별한 훈련프로그램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윤리적 헌신에 관한 이들 사례들은 정식으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기관들은 또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소비자 금융교육, 비영리 공동체 주도 혁신, 그리고 금융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사회적 목표들이 가장 잘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업들 자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들이 맡아야 하는가 입니다. 한가지 포인트는 규모의 경제와 대규모의 전문적인 연대조직이 갖는 독립적인 감독체계일 것입니다. 기업과 자선단체 사이의 대화는 야측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애정신은 이러한 윤리적 탐구가 회사의 본업 운영 자체에 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그들 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소비자와 시스템 리스크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시작하여 전통적인 가톨릭 사회교리(CST)층 하나인 모든 비즈니스 의사결정은 윤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금융상품은 지나치게 복잡해서 그러한 시험적 평가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어떤 금융기관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은행을 모르는 이들과 사회에 갇혀있는 젊은 이들의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을 비영리단체나 비영리 및 지역사회 단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개발했습니다. 이처럼 행동지향적 적극적 마음가짐에 힘입어 단지 또 하나의 추가적인 자선 활동이 아닌 비즈니스 정책에 부합하는 포용적인 금융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포인트로 보면 윤리적 사건에 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업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최근 경영 트렌드가 기업조직을 순위로 평가해 옹병 군인과 같은 태도를 조장할 때 그렇습니다. 빈도가 높은 최근의 케이스들은 금융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금융폐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윤리경제학이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리의식이 없는 단기 투자는 결국 주주의 고통으로 끝나게 됩니다. 윤리재건은 또한 교육에 의해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과 금융의 가르침에는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윤리적 해독력은 경제와 비즈니스 경영연구의 한 영역이 되어 경제적 교육이 실제 세계 문제에 근접하도록 통합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추세는 윤리에 '똑딱박스' 방식을 개발해서, 진정한 윤리의식 건설과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조직의 윤리적 배양은 아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책임성의 모범과 사회적 영향력 기준은 최상층에서 주어져야 하며, 이는 매우 시급한 이이어서 형식 관련사항에 반하는 내용 관련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경영층 선발 기준에 윤리적 분별능력이 역량평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관련사항에는 교회가 각별히 투명해야 하고 사회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 기대됩니다.

3. 자발적연대기금(VSF)

더블린 그룹이 제출한 전기 보고서에는 자발적연대기금(VSF)을 촉진하는 것이 금융거래나 자본에 국제적 조세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그룹은 교황청백주년선포기념재단(CAPP)와 교회당국, 그리고 전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실제적인 제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보고인 견해는 최근 IMF와 OECD 확인사항을 선진국에서 소득 불평도가 증가하고 있어 경

제성장에 고통을 주고 중산층을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에 성취한 우리사회의 안정수준이 성장둔화, 청년과 중년층 실업, 그리고 사회 경제적 침체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평균 소득수준은 괄목할만한 진보를 이루었지만,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인구의 대다수는 기본 생활마저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법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난한 이들에게 선택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운명에 존엄한 에이전트가 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기업이 정신을 훈련하고 미소금융으로 신용을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이 방향으로 나가는 세가지 이상적 방법처럼 보입니다. 이 보고서는 저소득 부류나 빈곤선 아래로 끌려 떨어질 위기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을 활용해 “지하에 묻힌 달렌트” 를 이 자발적 연대연금(VSF) 이니셔티브를 통해 “더 나은 어부가 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단기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따뜻한 햇볠효과”가 거부들의 기부도 매일 뉴스에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크리스천들 사이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연대는 아직도 전통적인 자선단체 주위를 방황하고 있어서, 극도의 빈곤에 처한 가족들에 집중하고 있는 형편이며, 그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뜯어고쳐 제대로 하려는 시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에 목표를 두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할 여력이 생겨 배제된 이들의 재통합에는 보통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그들 소득의 작은 부분을 기여할 수 있고 기금의 사용과 성공의 평가가 독립적 평가를 통해 완전히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더블린 그룹에 의해 열정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또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이 만들어졌습니다.

▷ 이 분야에서 가장 좋은 사례는 선물이 아닌 대출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미소금융 조직들에 의해 확인된 바는 부실채무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신용이 전문적이고 자발적인 코칭의 도움을 받아 실생활의 개인회생에 비범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교회 동참여가 예시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새로운 기금은 평신도 주도 이니셔티브가 되어야 하며,

전문가들에 의한 집중적인 자문과 참여와 최고 수준의 책임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새 기금들은 국가주도구도로부터 분리되어 개발 되어야 하며, 하지만 세금공제와 관련된 문제는 다른 국가 법 체계에 따른 접근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노력들과 중복됨으로써 ‘밀어내기’ 효과를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금들은 현존하는 구호단체들로부터 명확하게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 검증훈련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투자의 단지 새로운 자산 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래에는 수요가 있을 때에는 그들이 연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국가펀드와 지역펀드들은 일종의 공통적인 구도를 갖도록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처음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참여자와 수혜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험 수준으로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 목적과, 정점영역과 수행방법을 정의하는데 극도의 정밀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어떠한 이니셔티브라도 그것이 소득분배에 실질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발적인 연대기금(VSR)은 크리스천원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유휴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신용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된 가난한 이들이 포용될 수 있도록 금융자산운용과 법률프레임워크에 새로운 야심찬 개혁을 제안합니다.

4. 액션포인트와 미래회의

▷더블린 그룹의 멤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자발적인 연대기금(VSF)에 관한 토론을 하고 제안서를 교황청 백주년 기념재단(CAPP)이사회에 제출합니다. 제안서는 CAPP의 국제 컨퍼런스(2016년 5월 12-14일)에서 논의될 것이며, 이 기간 중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한차례의 회합이 확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뉴욕시에 위치한 포담대학교(2016년 9월23일)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에서도 논의 됩니다.

▷유럽위원회와 각국중앙은행에 포용적 금융과 미소 신용을 추진하는 것을 금융개혁프로그램 일부에 포함하는 질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개입을 준비할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은행부문이 기울이고 있는 새로운 규제를 구현하기 위한 현재의 전적인 헌신이 그 부문과 소속 산업 기구들이 좋은 금융시스템의 다른 기능들(결제, 중개, 리스크 관리)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을 찾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하는 것은 막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더블린 그룹의 미래회의 주제가 될 수 있으며 여기서 확인된 사항들은 향후 세계경제포럼(WEF)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또 국가차원의 금융부문 단체를 통해 논의 되도록 연계하려 합니다.

▷미래회의의 또 다른 주제는 디지털화, 새로운 금융세계 그리고 대두되는 윤리적 문제들입니다.

몰타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1. 로버트 A 애니발레 박사, 씨더 커뮤니티 개발과 씨더 포용적 금융
2. 조세프 보니치 교수, CAPP 과학위원회, 몰타중앙은행 총재
3. 까밀라 보르기스박사. CAPP 부회장
4. 다니엘 블레난 경, CAPP 자문이사회 멤버
5. 발콧 브라운 참사회원, 영국 성공회, 미션과 대외사업이사
6. 지안칼로 브루노 박사, 세계경제포럼, 운영위원회 멤버, 금융서비스
7. D'마리스 코프만 교수, 게임브릿지 대학교
8. 장 밥더스데 드 프랑슈 박사, 바티카, IOR 위원장
9. 폴 뎀빈스키 교수, CAPP 과학위원회,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10. 조세프 갈레히쿠르미 몬시뇰, 몰타 교구 비카제네랄
11. 파올로 가로나 교수, CAPP 과학위원회, 로마, FEBAF 디렉터

12. 호세 곤잘레스 파라모 박사, 마누엘, BBVA 운영이사
13. 로렌스 곤지 박사, CAPP 이사회 멤버, 몰타 전직수상
14. 마르코 구비토시 아프, CAPP 멤버, 런던 LAA 파트너
15. 테오도르 코발스키 씨, 미국재무성, 국장, 바클리 PLC, 전직 건축설계사
16. 지오바니 발세구에라 교수, CAPP 과학위원회 밀란 카톨릭카 사크로 구오레대학교
17. 마리아 노와크 박사, 파리 ADE 인터네셔널(미소금융) 사장
18. 마드니안 팍스트 교수, CAPP 과학위원회, 켄트대학교
19. 알프레도 파스토르 교수, CAPP 과학위원회, 바르셀로나 IESE
20. 바바라 리드파쓰 박사, 런던 세인트폴 인스티튜